2024.3.31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영원한 부활의 절대망대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 메시지-

시편 16:10, 고린도전서 15:12-19

정윤돈 목사님

* **시16: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 **고전15:12-19**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메시지로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지만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기독교를 마땅히 믿어야하는 '마땅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굳이 어떤 종교로 말을 한다면 부활의 종교다. 우리는 '부활교'다. 또 '영생교'다. 어떤 종교는 교주의 무덤을 기념하고 자랑한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처럼 많은 독재자들은 죽은 시체를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이다.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에 입성시키신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 저는 전에 천국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천국에 가기 싫었다. 그러나 천국은 이 땅보다 천만 배 아름답고 다양하다는 글을 봤다. 보홀을 보니까 물 속 물고기와 고래와 산호초가 너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이걸 누리라고 다 만드셨다.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 인생이 별거 없다. 그냥 늙고 그냥 죽고 그냥 병든다. 평생 한두 개 악기를 배우면 인생이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름다운 천국에서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그 길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것 같은 아름다운 천국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안 가봐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천국과 지옥을 가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활절에 부활절 메시지를 듣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①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이다. ②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③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 사탄, 지옥이라는 근본문제가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된 사건이다. ④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예수는 33살 무식한 사람인데 우리는 왜 더 잘난 박사와 같은 사람들을 믿지 않을까?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삭개오, 과부의 자녀도 부활은 아니다. 소생한 것이다. 소생한 건 다시 죽는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육신이나 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 계시다.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 영으로 있다. 부활체가 아니다. 마지막 날에 홀연히 변화되어 부활체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영으로 있다는 건 아름다운 관광지를 TV로 보는 것과 같이 있는 것이다. 부활체가 되어 느끼는 것과 TV로 보는 건 다르다. 지옥도 마찬가지다. 영으로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체로 당하는 고통은 천만 배 더 세다. 예수 믿으면 영생에 이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여러분의 윤리 도덕은 다 똑같다. 저의 초등학교 때 착한 애가 중학교 가서 안 좋은 친구 만나서는 이상한 애가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복음으로 착해야지 기준이 없이 멍청해서 착한 건 굉장히 쉽게 변한다.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이다. ⑥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후에 많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확실한 이유와 근거가 되었다. 어떤 성도들은 인생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데, 그건 초대 마가다락방 성도들과 전혀 다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감옥에 갔고 자녀들도 고통당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로 끝난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 그 사람에게 참된 축복을 주신다. 아직도 세상적인 걸로 고민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로 결론 낸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때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진다. 분(화)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0.1초를 넘기지 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아야 하고, 삼았기 때문이다. ⑦ 부활은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건이다. 새것이 되시기 바란다. ⑧ 부활의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신 모델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이 모델적으로 부활체와 부활을 보여주셨다.

1. 부활에 대한 대표적인 의문과 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유대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3절에 보면 한 여인이 7명의 남편과 결혼한 후에 모두 부활을 한다면 '그 여인은 그중에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되리이까?'라고 질문하였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러한 질문은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과학과 지식이 발달한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더 다양한 질문과 의문을 갖고 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지금 미국에서 노아의 방주를 30%정도만 믿는다고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과서를 쓴다. 정말 서밋이 일어나서 그 거짓말을 다 바꿔야 한다. 항상 부활절에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오늘도 부활에 대한 의문과 그 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부활을 믿는 게 불신앙과 믿음의 시작이다. 그런 의문점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과 이에 대하여 반증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1)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주장했던 이론에는 기절설과 도난설, 환상설이 있다.** ① 기절설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나 도망쳤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기절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활을 증명해 주는 주장이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확실한 부활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셨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창으로 찔렀을 때 심장에서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는 것이 사망의 증거이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죽으면 혈소판이 피에서 분리된다. 그러면 피가 하얘진다. 사람이 죽어야지만 분리된다. 그게 심장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창이 옆구리를 통과해서 심장을 찔렀다는 말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만약 기절했다가 눈을 떴다 하더라도 온몸은 세마포로 감겨있었다. 그리고 손과 발은 못에 박혔었다. 그러면 걸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동굴 무덤에서 나오려면 기어 나와야 했을 것이다. 한 번 손과 발에 못

을 박아서 걸어가 보자. 못 걷는다. 긴다 하더라도 그 동굴은 약 6톤의 돌로 막혀 있었다. 만약 동굴의 돌을 밀고 나왔다 하더라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잡혔을 것이다. 그래서 기절설로는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 ② 다음은 도난설이다. 도난설은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 숨겼다는 도난설이 있다. 이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10명이 순교를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평생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순교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시체를 훔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말이다. 두 번째 도난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는 주장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이면서 "여기 봐라 시체 여기 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난설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 ③ 다음은 환상설이다. 환상설이란 잘못 봤다는 것이다. 그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은 환상을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환상설도 성립될 수 없다.

(2)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 다윗은 삼천 년 전 사람이다. 삼국시대도 이천 몇백 년 전 사람이다. 고고학에서는 돌조각을 보면서 다윗이 있음을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천 년 전 인물인데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100년 이전 인물은 그 누구도 존재했다고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세례를 그냥 받지만 이전에는 40일 간 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줬다. 당시 기독교 국가 시절에는 공직에 나갈 수도 없었다.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다가 종교로 전락했다. 참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이 자리에 임하시기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백 년 전의 인물들과 이순신 장군의 존재도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다. 예수님의 사료는 사본 자료가 5천 개, 6천 개다. 성경처럼 많은 자료가 있는 게 인류 역사상 없다. 조선왕조실록이 5백 년 밖에 안 되었는데 그마저 3권 중에 두 권은 타고 지금은 한 권만 남았다.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분이시다.

(3) 세 번째로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네 사람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법적으로도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으면 증거의 효력이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다르다. 특히 마태는 세리였고,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니었고, 누가는 이방인이며 바울의 제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든 유대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다.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은 다 개인의 인격과 배경까지 포함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 똑같으면 그게 베꼈을 확률이 높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는 신앙의 전통과 여호와 유일신을 믿었던 철저한 유대주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교까지 하였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부활은 설득되는 것도 증명되는 것도 아니며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부활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다.

2.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말씀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다.

(1) 첫째로 구약에서 예시된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성경을 말한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 예표된 부활에 대한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만 나누기로 하겠다. ① 아브라함에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 부활신앙을 예시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②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도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했다. ④ 다윗과 시편 기자들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편 16편 9에서로 10절을 보겠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스올은 지옥을 말한다. ④ 이사야 선지자도 부활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 이사야 25장 1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망을 멸한다는 게 부활이다. ②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2) 두 번째로 신약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① 부활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② 그렇다고 사람들의 부활이 모두 좋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을 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 그러나 부활해서 심판받고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 부활체로 지옥에 가면 더 고통스럽다. 한 분도 안 가시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저는 악해서 지옥가야 해요' 말하지만 그건 겸손한 게 아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보겠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못하고 마귀한테 맞고 하나님께 맞고 목사님께 꾸지람 당한다. 그러나 그게 최고 축복이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오늘은 7.7.7기도문 즉,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 중 7여정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여정은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다. 앞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문 책자를 구입해서 보급할 것이다. 저도 그 책자를 보고 기도한다. 여러분도 활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란다. 우리는 숫자가 너무 많지만 과자도 자동차도 만들어야 이름을 붙인다. 사업도 안 하면 이름 붙일 것도 없다.

"①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②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③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④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⑤ 나와 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⑥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오늘 어디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하여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우리만 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영생과 부활과 행복을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